

“순천시 창설 한국 첫 학도병 중대 명예 찾아줘야”

내일 6·25 66주년...정효명 참전학도병 동지회장에 듣는다

1950년 7월 여수 등 지역 중학생 180명 입대...9일 훈련뒤 투입
교복에 모자 쓰고 소총 한자루로 교전...화개전투서 70명 사망·실종
단 1차례 유해발굴로 1구만 유공자 인정...정부 적극 관심 필요

정효명(82·여수시 덕충동·6·25 참전학도병 동지 회장)씨는 매년 6월이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 우리 강산 어딘가에 묻혀있을 전우 생각 때문이다. 그와 전우들은 6·25 당시 열여섯 남짓의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다. 월서 쓰고 적군에 맞서겠다는 투지에도 학도병들은 입대 2주 만에 벌어진 첫 전투에서 70여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1950년 7월 25일 경남 하동 화개전투에서다.

전사자 중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학도병은 단 1명뿐이다. 여수·순천 등 전남지역 학생들로만 꾸려진 국내 첫 학도병중대의 존재 사실이 지역에 서조차 조망받지 못한다는 점, 유해발굴이 더딘 탓에 전사자 대부분이 참전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국내 첫 순수 학도병 중대=정씨 등 학도병들은 1950년 7월 13일 국군 5사단 15연대에 자원 입대했다. 연대본부에는 당시 순천역 시장 주변에 마련돼 있었다. 6·25 당시 정규부대에 개별적으로 배속된 5만여명의 학도병과 달리 이들은 순수 학도병들만 구성된 학도병중대로 편성됐다. 여수중·순천중 등 전남지역 17개 중학교 소속 180여명의

학생들로 꾸려졌다. 국내에서 편성된 최초의 학도병 중대였으며, 영화 ‘포화속으로’로 제작된 순수 학도병중대(경상도 학생들)와 함께 유일한 학도병 중대였다.

정씨가 속한 15연대 학도병 중대의 존재는 지난 1992년께 광주일보의 자매지인 ‘월간 예향’을 통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어수선한 시국이 한동안 이어졌던 데다 학도병 참전 자체가 유엔헌장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존재를 밝히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보도 이후 15연대 학도병 중대를 기리는 기념비가 여수시 오림동 남체육공원에 들어섰고, 학도병들의 첫 전투의 장소로 엄청난 사상자를 낸 경남 하동 화개마을 인근에는 위령비가 세워졌다. 시간이 흘러 지난 2007년 7월에는 한 차례 유해발굴도 이뤄졌다. 그 결과 끝이었다.

◇군번도 없이 편대신 총 들고 싸웠지만=15연대 학도병들은 9일간의 짧은 훈련을 마치고 출정했다. 무기도 지급받지 못한 채 군복 대신 교복을 입고 철모 대신 학생용 모자를 썼다. 7월 23일 남원에 도착해서야 M1 소총 한 자루와 실탄 80발

을 지급받았다. 이를 후 오전 7시 하동 화개면 탑리 아산에 배치된 학도병들은 북한군 최정예 6사단 선봉대와 교전했다. 경남 진주와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에 맞선 학도병들은 소총 한 자루를 들고 3시간 이상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학도병들이 목숨 걸고 적군을 막아내면서 피난민에게는 후퇴할 시간이, 아군에게는 전력을 재충전할 여건이 주어졌다. 이 전투에서만 학도병 70여명이 숨지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등 실종됐다. 학도병들의 첫 전투이자 마지막 전투였다. 100명 남짓의 생존병으로는 단독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학도병중대는 한 달여 뒤 해체됐고, 학도병들은 이후 제주도 하사관학교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 후 57년만인 지난 2007년 7월 화개전투가 벌어진 아담리 아산에서는 유해발굴이 이뤄졌다. 생존자 정씨의 증언을 토대로 국방부는 10구의 유해를 찾아냈지만 신원이 확인된 것은 단 1명(송원중씨·순천중)에 불과했다. 어린 나이에 참전한 탓에 후손을 남기지 못해 유전자 분석을 할 가족이 마땅찮은데다 군번도 없이 참전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여수중 동기동창 김진서, 김병재... 친구이자 전우들이 아직도 어딘가에 묻혀있는 게 분명한데 단 1차례 유해 발굴 이후 진척이 없고, 전우들의 존재 자체도 잊혀져 가고 있다”면서 “편대신 총을 들고 적과 싸운 전우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유해를 발굴해 달라. 전우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여수=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6·25 참전 학도병 동지회 정효명(82) 회장이 23일 여수시 덕충동 자택에서 국내 최초로 편성된 학도병중대와 그들이 벌인 첫 전투 '화개전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전사자 명예회복을 위해 서라도 유해발굴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총장선거 파행으로 치닫나

구성원 참여비율 교수회·학생 반발
교수평의회 “후속 절차 진행 못해”

조선대 이사회가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 구성원 간 세부 참여 비율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교수·학생들의 반발이 커 총장 선출 파행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23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열린 제 77차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 직접 투표에 참여할 구성원 비율을 전임교원의 경우 70%로 정하고 직원(18%)·학생(9%)·동문(3%) 등이 30%를 채우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구성원별

참여 비율을 결정했지만 교수·학생 등 세부 투표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당장, 교수평의회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독단적 결정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회 참여가 없을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대학측 설명이다. 학생회도 학생 참여 비율을 15%로 늘려달라며 한때 이사장실까지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는 현 총장 임기(9월23일), 해외 연수·출장 등으로 교수 의견 수렴이 힘들어진 점, 교수·학생 반발 등을 고려하면 총장 선출 파행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 초·중·고 172곳 우레탄 트랙 사용 금지

전남도교육청이 유해 성분이 검출된 172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 사용 금지 조치(광주일보 6월22일자 6면)를 내렸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우레탄 트랙을 보유한 254개 학교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2개(67.7%) 학교에서 기준치(KS기준 90mg/kg)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돼 개·보수 전까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1곳 ▲중학교 45곳 ▲고등학교 24곳 ▲특수학교 2곳으로, 납 성분이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3000mg/kg 이상 검출된 학교도 8곳(초·중·고 1)에 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라인을 설치하는 한편, 플래카드를 게시해 인근 지역민들에게 안내키로 했다. 특히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도 KS기준을 제정된 2011년 4월 이후 우레탄 트랙을 조성한 13개 학교에 대한 검출 결과가 나오는대로 기준 검사 결과(44개 학교 중 40곳에서 기준치 초과 납 성분 검출)와 종합해 사용 금지 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Kwangju Arts Center

라주 프린지 페스티벌
2016. 4. 23 ~ 11. 26

토요일 주 토요일 | 5·18민주광장 일일 넷째 주 토요일 | 금남로 일일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
〈타악퍼포먼스 人水火風〉

6월 25일 토요일 19:00~20:00
금남로 프린지페스티벌 특설무대

8월 13일 토요일 18:00~19:00
5·18민주광장 특설무대

(사)내뱃소리민족예술단
〈아리랑을 찾아서 꿈 속의 고향〉

10월 1일 토요일 15:00~16:00
전통문화관

임지형 & 광주현대무용단
〈(U)리랑〉

10월 18일 화요일 19:30~20:30
빛고을시민문화관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관 |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문의 | 062-670-7946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 해질 19:51 | 달돋이 22:33 | 달질 08:49

주말엔 화창
강한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었다.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리고비	21/25	보성	흐리고비	20/24
목포	흐리고비	22/25	순천	흐리고비	21/25
여수	흐리고비	21/23	영광	흐리고비	21/25
나주	흐리고비	21/25	진도	흐리고비	21/24
완도	흐리고비	21/25	진주	흐리고비	22/25
구례	흐리고비	20/25	군산	흐리고비	22/24
강진	흐리고비	21/25	남원	흐리고비	22/24
해남	흐리고비	21/25	홍산도	흐리고비	19/23
장성	흐리고비	20/24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1.0~2.0	북~북동	1.0~2.0
	먼바다	동~남동	1.0~2.5	북~북동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남서	0.5~1.5
	먼바다(동)	남동~남	1.5~2.5	남~남서	1.5~2.5
	먼바다(서)	남동~남	1.5~2.5	남서~서	1.5~2.5

◇물때

지역	밀물	썰물
목포	04:47	09:57
	16:50	21:59
여수	11:26	05:26
	23:58	17:21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25(토)	☀	20/29
26(일)	☀	20/29
27(월)	☀	20/29
28(화)	☁	21/27
29(수)	☀	21/28
30(목)	☀	22/27
7/1(금)	☀	21/27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 보통: 자외선
- 보통: 피부질환